

1

백장: 전후 일본의 제국 기억

제국일본의 로망과 동아시아 민족주의

— 일본낭만파에 대한 기억, 1950~1960년대

조관자



- (위) 『일본낭만파』의 창간 멤버인 진보 고타로(神保光太郎)의 시집 『鳥』 출판기념회. 가운데줄 맨 왼쪽이 야스다 요주로, 아랫줄 맨 왼쪽은 가메이 가쓰이치로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가메이 가쓰이치로, 『야스다 요주로 저작집』 창간 광고, 다케우치 요시미



1. 제국의 로망과 그 기억

중국어권에서도 통용되는 ‘浪漫’은 원래 한자문화권에 없던 말이다.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에 도쿄제국대학 영문학과에서 18세기 영국의 로맨티시즘 작가에 대해 강의했던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가 로망(roman)의 음역어 ‘浪漫’을 탄생시켰다.¹⁾ 한자의 훈음을 덧붙여지게 조합한 일본어 ‘로망’은 제국일본의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어 ‘낭만’으로 이식되었다. ‘浪漫’이란 상형문자가 동아시아 문화권에 정착한 것이다.

일본어 로망의 쓰임새를 보면, 남녀상열지사뿐 아니라 남자의 스타일이나 포부, 남성동성애적 결사집단의 대결을 형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세와 근대의

* 지은이 | 조관자 일본 주부(中部)대학 인문학부 준교수로서, 일본과 동아시아의 역사·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 석사과정에서 에도시대의 국학자인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를 연구한 후, 근현대 일본과 한국의 문화 내셔널리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박사과정에서는 신채호와 이광수의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탈민족주의적, 폭력 비판론적인 해석을 시도한 후, 식민지기 조선과 제국 일본의 지식 및 문화의 상호 작용 관계를 연구했다. 교육 현장에서 서면서부터는 1945년 이후 동아시아의 냉전 질서와 함께 구축되고 변화해 온 여러 갈래의 역사인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저서에 『植民地朝鮮/帝國日本の文化連環—ナショナリズムと反復する植民地主義』, 有志舎, 2007이 있다. 논문으로는 「共同的なる徳とカリスマの表象」, 『思想の身体—徳の巻』, 春秋社, 2007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411-J00701). 필자는 『일본비평』 창간호의 특집서평에서 일본사회의 ‘반미-아시아주의’ 내셔널리즘을 다룬 적이 있다. 이 글은 그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검증한 작업이기도 하다.

1) 프랑스와 독일어의 Roman (영어 romance)은 중세의 기사담에서 비롯한 사랑과 모험의 소설을 뜻한다. romantic은 사랑스런 느낌, 비현실적 몽상적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여기에서 로맨티시즘이 나왔다. 낭만주의(浪漫主義)는 로만티시즘에서 음(roman)과 훈(-ism)을 따온 일본어 번역어(‘로망슈기’)이다.

이행기에 펼쳐진 무사들의 ‘천하통일’ 로망은 역사소설, 드라마, 만화, 컴퓨터게임, 지방문화재의 콘텐츠로 무수히 개발되어 왔다. 이렇게 내셔널 히스토리의 갖가지 버전을 향유하는 풍토 속에서 자라난 오타쿠(어느 한 분야 취미에 능통한 골방 전문가)들이 대학의 일본사·일본문화학과를 지망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인터넷에서는 ‘戦国浪漫’(센고쿠로망)이란 전국시대 무사들의 무용담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시선을 끈다. 천하통일을 둘러싼 남성들의 충성과 배반, 지략과 기개, 투쟁과 죽음에서 낭만의 미학을 찾는 것이다. 유럽의 roman이 원래 중세 무사들의 이야기인 것을 떠올리면 이 사이트의 명명은 정곡을 찔렀다고 하겠다.

에도(江戸)의 태평성대에서 잊혀졌던 무사들의 로망이 부활한 것은 메이지 유신기, 즉 존왕양이의 내전상태에서 문명개화의 독립국가로 이행하던 시대이다. 이후 무사들은 일본의 존망문제를 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사고했으며, 일부는 대동합방(大東合邦)을 꿈꾸기도 했다.²⁾ 아시아주의 해외공작을 담당한 흑룡회(黒龍會)의 ‘대륙낭인’들은 쑨원(孫文)의 중국혁명과 일진회의 활동만이 아니라, 인도와 필리핀의 독립을 지원하는 ‘홍아운동’도 펼쳤다. 전후에 이들은 GHQ(연합군최고사령관 총사령부)에 의해 해체되면서 제국주의 침략의 선봉으로 각인되었고, 검정차에 히노마루를 걸고서 도심을 배회하는 국가주의 우익단체의 원조로 기억되었다. 하지만 흑룡 문양은 아시아적 남성성을 상징하면서 프로레슬러나 격투기선수의 상의, 디지털게임의 캐릭터에 화려하게 새겨지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전후민주화 및 미일동맹을 비판하는 아시아 민족주의 및 지역주의가 부활하면서 그 재평가도 이미 시작되었다.³⁾

2)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 『大東合邦論』(1893)은 문화적 공동성에 기초하여 한일의 대등한 합방을 논했으나 후일 한일 병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작용했다.

3) 千坂恭二, 『日本的前衛とアジアの大衆 ―アジア主義の革命と戦争』(『情況』, 1997, 8・9.)은 흑룡회의 아시아주의 및 대륙낭인의 활동을 아시아 혁명운동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한다. 요네타니 마사후미(米谷匡史)의 『アジア/日本』(岩波書店, 2007)는 근대 이후 일본에서 아시아 변혁운동에 관계한 아시아주의의 제 논리를 망라하며, 침략과 저항이 굴절하고 변화하는 문제를 밝히고 있다.

내셔널 히스토리에 기개와 지략과 충혼을 불어넣는 무사적 로망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후에도 꾸준히 환기되었다. 쓰루미 유스케(鶴見祐輔)는 1928년 ‘대일본 웅변회 강담사’에서 『영웅대망론』을 출판한다. 러일전쟁 이후 소원해진 영웅에 대한 기억을 불러오면서, 서양문명의 추락에 대신하여 일본민족이 동아민족의 재생을 향한 통합력을 발휘하고 팽창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⁴⁾ 이에 앞서 1924년에는 같은 출판사에서 만주철도회사의 총재를 역임한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일본팽창론』(초판 1916년)을 재출판하기도 했다. 만주경영을 위해 소련 및 중국과의 외교문제까지 고려했던 고토와 그의 사위 쓰루미의 저술은 바야흐로 15년간 전쟁에 돌입하기 직전에 영웅적 국민의식을 계몽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무사적 낭만은 진주만 폭격으로 시작하여 히로시마 원폭으로 끝난 ‘대동아전쟁’에서 그 마지막 혼신을 불태웠다. 그러나 패전은 ‘대동아 해방전쟁’에 투신한 영웅을 전범으로 끌어내렸다. GHQ는 ‘대동아전쟁’ 명칭을 제국주의 및 국가주의 잔재로 간주하였고, 교과서는 제국의 로망을 거세한 ‘아시아·태평양 전쟁’ 용어를 채택하였다. 가미카제 특공대와 일본군의 충성스런 혼령은 패전과 평화담론에 흡수되거나 국가폭력의 희생물로 기억될 뿐, 애국적 영령으로 공식화하거나 추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전후의 영웅만들기에서 1930년대 이후 제국 팽창과 전쟁은 공백으로 처리되는데, 이는 국민작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소설이 전국시대와 메이지국가의 ‘건전하고 활달한 영웅’들에 집중된 것에서도 발견된다. 제국주의 멍에를 벗겨내고 국민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제국의 로망에 대한 기억을 허락하고, 패자의 자존심을 위안하는 영웅은 고작 ‘전함 야마토’ 정도였다. 영웅화된 물상만

4) 鶴見祐輔, 『英雄待望論』, 大日本雄弁会講談社, 昭和3年(1~12쪽). 이 출판사는 대형 출판사 고단샤(講談社)의 전신이다. 리버럴리스트 정치가이자 작가인 쓰루미 유스케는 고토의 사위이고,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의 활동을 이끈 진보적 지식인 쓰루미 슌스케(俊輔)는 그의 장남이다. 이 일가의 정치적, 지적 생산 활동을 추적한다면, 전전과 전후에 걸쳐 변화하는 일본지식인들의 아시아주의를 하나의 스펙트럼에 펼쳐 놓고 엿볼 수 있다.

이 과학기술국 일본의 부흥신화를 입증하는 기념물로서,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심리 속에 파묻혀 버린 무사적 로망을 환기시켰던 것이다.

패전의 허탈감은 일본의 아시아주의, 즉 식민지로 전략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지킨 아시아의 ‘맹주-주체’라는 자부심을 앗아 갔다. 대신에 서구제국의 침략을 대항한 아시아의 ‘지배자=노예’였다는 자각과, 패전과 점령으로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라는 위기의식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루쉰(魯迅)연구를 통해 중국의 근대와 일본의 근대를 비교하면서 일본의 ‘근대화=종속화’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전후일본의 자기비판 논리로서 ‘지배자=노예’라는 형용모순과 ‘근대화=종속화’라는 등식의 배경에는 1930년대 이래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및 역사학 주류의 인식이 깔려 있다. 이들은 일본이 아시아에 식민지배를 확대한 자본주의·제국주의 국가이면서도, 서구제국주의에 굴복해 강제로 개국한 반봉건 사회라는 점에서 일본사회성격의 이중성과 민족모순을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1938년 이후 ‘동아신질서’, ‘동아협동체’, ‘대동아공영권’ 같은 아시아맹주론의 질주 속에서 잊혀졌던 일본자본주의의 주변부적 성격이 전후 공산당 재건과 함께 부활했던 것이다.

세계체제의 불균등성과 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에 근거한 이런 문제의식은 21세기 일본사회에서도 여전히 찾을 수 있다. 식민주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본을 ‘지배자-타자’로만 인식해 온 한국적 민족주의의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의 황당한 논리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독립적 주체’와 ‘종속적 노예’의 간극 사이에서 주체성을 사고하는 논법은 근대일본사상사에서 주요한 문맥을 이루고 있다. 그 분열을 극복하는 문제는 영국유학에서 신경쇠약에 걸려 귀국한 나쓰메 소세키의 문명비평 이래 줄곧 제기된 일본식 아이덴티티의 문제였던 것이다.

서양문명에 대한 일본사회의 동경과 콤플렉스는 20년대 맑스주의 수용에 대한 반성을 거쳐 1930년대 초반부터 사상과 문화의 주체화운동으로 나타난다. 이 흐름은 만주국 건설 이후, 천황제 민족주의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강화하며, 동

아제국의 팽창전략에 통합되어 갔다.⁵⁾ 그리고 그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1945년 이후 동아시아 전역에서 ‘민족주체’와 ‘국가건설’, ‘아시아혁명’과 ‘근대화’의 논리가 대립과 굴절적 반전을 거듭하면서 여전히 난산 중에 있는 것이다.

이글은 중국혁명,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으로 이어지는 1950~60년대 일본에서, 동아시아 민족주의 고양과 함께 제국일본의 로망이 기억되고, 그 기억이 다시 아시아주의를 부활시키는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1950년대 초반 ‘전후민주화-아메리카식 근대화’를 거부하는 일본의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주의적 ‘저항력’을 상실한 일본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 민족주의를 선망하고 마오이즘에 의거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혁명에서처럼 서구식 근대화에 저항하는 아시아적 ‘주체’로 거듭날 때 비로소 아시아 침략의 죄과와 서구근대의 ‘노예’라는 일본민족의 상처를 동시에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 시절 담론에서는 제국의 로망을 대변하는 인격체가 복권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일본낭만파이다.

2. 일본낭만파의 탄생(1934~1937)

1) 일본낭만파의 사람들

일본낭만파는 1934년 말부터 고전부흥을 예술의 본도로 선언하고, 동인 잡지 『일본낭만파』(日本浪漫派, 1935년 3월호~1938년 8월호)를 발행한 문인그룹을 지칭한다. 전후 일본의 평론계에서는 일본낭만파에 동조한 주변 문인 및 그들의 문학이념까지 포괄하여 일본낭만파로 접근하기도 한다. 창간멤버는 주간을 담당한 야스다 요주로(保田與重郎; 평론)와 가메이 가쓰이치로(亀井勝一郎; 평론)를 비롯

5) 제1차 세계대전 후 1920년대 일본은 공업과 도시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서양문화를 소비하는 대중문화가 발전하면서 아메리카니제이션을 비판하는 담론도 출현했다. 대공황 이후 1930년대 세계는 식민지와 종속국을 잇는 지역의 시장질서를 국가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쟁체제를 형성하게 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만주국을 동아시아인의 정치적 협화와 불록경제를 구축하는 근거지로 구상하고 중일전쟁으로 내달렸던 것이다.

한 6명이나, 3호부터는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등 16명이 더 참가했다.⁶⁾ 창간 무렵 이들은 저널리즘 무대에서 아직 자립적 생계를 꾸리지 못한 30세 전후의 청년들이었다. 하지만 1937년부터 이미 문단의 주류로 활동한 평론가 하야시 후사오(林房雄)와 중견시인 사토 하루오(佐藤春夫)가 참여하는 등 '대일본낭만파'로 성장해 있었다.⁷⁾

1938년, 재정문제로 잡지를 폐간하면서 동인도 해체하였으나,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낭만파의 명성과 영향력은 지속되었다. 동인들의 작품은 각양각색으로 문학의 정치성이나 정치운동을 옹호하는 작가는 없었지만, 프롤레타리아 문예운동이 쇠퇴한 가운데 그 사상과 정서는 당대의 문화매체를 통해 제국일본으로 전파되었고 청년층의 심성에 파고들었다.⁸⁾ 1935년 1월 내내 『조선일보』 학예란에는 「조선문학상의 복고사상 검토」 등, 고전부흥의 필연성과 탐구의 의의를 밝히는 기사들이 연재되었다.⁹⁾ 1930년대 후반, 민족문화의 혈통과 운율을 구가하는 일본낭만파의 이념과 태도는 조선과 만주를 포괄하는 제국의 영역에서도 문화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⁰⁾

도쿄제국대학 미학과를 졸업한 야스다는 독일낭만파의 사상과 방법을 적극

6) 그 밖에 창간 멤버는 진보 고타로(神保光太郎; 시), 나카타니 다카오(中谷孝雄; 소설), 나카지마 에지로(中島栄次郎; 평론), 오가타 다카시(緒方隆士; 소설). 요절한 오가타를 제외하고 이들은 중산층 출신에 도쿄제국대학과 교토제국대학 등을 나온 문학청년들이었다.

7) 1937년 1월호 편집후기에서 가메이는 문화의 힘있는 지도역량을 확신하면서 '대일본낭만파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으며, 폐간 무렵에는 50여 명의 동인이 활동했다.

8) 1934년 11월부터 『コギト』에 연재된 「일본낭만파, 광고」가 문단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일본낭만파』는 창간되었다. 또한 야스다가 창간멤버들이 일본낭만파의 사상과 방법을 선언하는 한편 이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활발히 발표되면서, 대중적 관심이 확대되었다. 전전의 일본낭만파에 대한 문헌일람은 『日本浪漫派とはなにか 復刻版』(日本浪漫派別冊, 2007年復刻版, 151~154쪽).

9)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 연구」(일지사, 1999, 323~324쪽) 참조. 중일전쟁 이후 조선에서 벌어진 복고주의 논쟁과 조선학 운동에 대해서는 조관자, 「조선학과 고전부흥」(『殖民地朝鮮/帝國日本の文化連環』, 有志舎, 2007, 제3장)을 참조.

10) 일본낭만파의 동인인 기타무라 겐지로(北村謙次郎)는 1937년 12월에 만주로 이주하여 1938년 10월에 잡지 『滿洲浪漫』을 창간하였다. 1941년 5월에 제7집까지 간행된 이 잡지는 1942년에 4권의 문고본 『滿洲浪漫叢書』로 간행되기까지 신징(新京, 현재의 중국 장춘)을 중심으로 한 '만주 르네상스'의 문예 기반을 확립했다(呂元明, 「滿洲浪漫」의全体像, 『滿洲浪漫研究東京』, ゆまに書房, 2003, 6~7쪽).

적으로 모방하여 일본낭만파를 이끌었다. 나라(奈良) 출신인 그는 오사카고교 재학시절부터 동인지 『코기토』(コギト)에 고전에 관한 평론을 발표하면서, 유럽적 교양에 길들여진 동인들을 자극하고 안내했다. 그의 주변 인맥에는 낭만적 서정을 대표하는 시인 사토 하루오, 자위대의 쿠데타를 주장하다 할복자살한 탐미주의작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중국혁명과 아시아의 민족주의를 지지한 사상가 다케우치 요시미 등이 있었다.

한편 홋카이도(北海道) 출신으로 역시 미학과에 입학한 가메이는 도쿄제국 대학의 맑스주의 조직인 신인회(新人会, 1918~1929) 활동으로 2년반의 수감생활을 보냈다. 결핵에 걸려 죽음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정치활동을 단념한다’고 서명한 가메이는 야스다를 만난 후 구도자의 혁명적 자세로 고전을 탐구하고 근대 문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본낭만파 해체 이후에 하야시 후사오,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 가와카미 데쓰로(河上徹太郎)와 더불어 『문학계』(文学界)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좌담회 ‘근대의 초극’을 주최한 사람 중 한 명이다.

2) 낭만적 ‘이로니’(ironie)와 일본적인 것

1932년 NARF(일본프롤레타리아작가동맹)에 소속되어 전향문학자로서의 주체성을 모색하던 가메이는 NARF의 해체(1934. 2) 직후 ‘전형기(転形期)의 문학’을 논하였다. 그 특징은 일본문학의 이중역할에 있다.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부르조아 혁명과 부르조아 문학의 르네상스까지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다.¹¹⁾ 이는 강좌파 맑스주의자들의 2단계 혁명론(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을 거쳐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에 입각하면서, 급진적 정치투쟁을 멈추고 대중적 문화창조에 주력한다는 전향의 논리이다.

1934년 11월 일본낭만파는 ‘평속저회(平俗低徊)의 유행문학’을 부정하고,

11) 『転形期の文学』(1934), 『現代日本文学大系』 61卷, 筑摩書房, 1970, 109쪽.

‘시대청춘’을 노래하는 일본낭만파를 창조할 것이라고 광고했다.¹²⁾ 야스다의 격정적 문체와 가메이의 유연한 혁명론은 당대의 침체한 분위기를 딛고 ‘혁명적 낭만주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화려하게 등장한 그들은 불기고답(不羈高踏)의 고전정신을 노래했으며, 더 이상 고향을 상실한 근대인 속에서 배회하지 않고 고향-야마토(大和)에 회귀할 것을 밝혔다.¹³⁾ 그들은 동서문화의 고전을 모두 존중하고 모방하는 청년의 문학을 추구했다.¹⁴⁾ 배타적 국수주의와 거리를 둔 만큼, 『일본낭만파』의 속표지는 경주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기왓장의 봉황 문양이 장식하고 있다. 이 같은 복고적 예술론은 진보주의와 리얼리즘에 위배되는 ‘반동’으로 공격받았고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 그룹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 갔다.¹⁵⁾

야스다는 유물변증법과 리얼리즘에 대항하여 독일낭만파의 이로니(ironie, 반어)를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시하였다. 이로니는 ‘사실’의 고착적 권위화에 맞서서 ‘거짓’(미적 허구)이 더없이 순수함에 이르는 가능성, 근대적 진보에 맞서서 미의 종말을 감지하는 ‘낭만적 반향’의 정신이라고 야스다는 역설한다.¹⁶⁾ 때문에 문예사조론에서 일본낭만파는 예술지상주의, 데카당스, 복고주의로 분류된다.

한편 야스다의 고전론은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처럼 고대 그리스·로마의 미의식과 인문주의의 관점에서 일본의 고전을 해석하고 국민적 전통을 발견하는 강단적 교양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¹⁷⁾ 일본적인 것의 순수한 형식과 내용을 탐구하는 일본낭만파는 또한 일본주의의 관료적 매너리즘과, 정치적 슬로건이 된 일본정신의 세속적 유행을 철저히 거부했다.¹⁸⁾ 하시카와 분조(橋川文三)는 이러

12) 保田與重郎, 『日本浪漫派』 廣告, (1934. 11), 『現代日本文学論争史』 中巻, 未來社, 1956.

13) 고향상실은 고바야시 히데오(『故郷喪失者の文学』, 1933)가 부각시킨 문학계의 화두였다. 전후의 가메이의 진술을 보면, 당시 젊은이들이 갖고 있던 유럽문화에 대한 동경과 콤플렉스, 일본의 고전에 대한 공백 속에 일본낭만파의 움직임이 파고든 것으로 생각된다(『現代史の中のひとり』, 文芸春秋新社, 7쪽).

14) 『日本浪漫派のために』, 『保田與重郎全集』 第2巻, 448~449쪽.

15) 프롤레타리아 문예운동 진영에서는 일본낭만파와 그 시정신에 대항하여 산문정신을 제기하고, 다케다 린타로(武田麟太郎)가 주관이 되어 『인민문고』(人民文庫, 1936. 3~1938. 1)를 창간하였다.

16) 『後退する意識過剰—日本浪漫派について』, 『コギト』 第32号(1935年 1月号), 『保田與重郎全集』 第2巻, 431~432쪽.

한 일본낭만파의 사상과 태도를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국학과 독일낭만파의 이로니와 혁명적 맑스주의의 결합으로 설명한다.¹⁹⁾

『일본낭만파』 1937년 8월호에 실린 좌담회 「낭만파의 장래」에서, 야스다와 가메이는 '정신의 혈통'을 분명히 하는 '정신사'를 확립한 것이야말로 일본낭만파의 업적이라고 말한다.²⁰⁾ 일본의 문학전통을 순수히 일본적인 것의 계보[純美純理]로서 재구성한 것이다.²¹⁾ 이 혈통은 헤이안 말기에 가마쿠라막부에 패배한 천황 고토바인(後鳥羽院)의 '패배의 문학'에서, 무로마치시대 하이카이(俳諧)의 성인 바쇼(芭蕉)의 '바람의 문학'을 거쳐, 일본적 미의식을 표현하였다는 평가 속에 훗날 노벨상 작가로 떠오른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로 이어진다. 이들에게 고전은 '고대 대중의 실증물', 즉 생활의 증거이며, 대중은 '정신의 당파'로 간주된다. 따라서 고전을 현대의 대중에 이어 주는 다리를 놓는 것이야말로 '낭만파의 장래'를 약속하는 과제이면서 진정한 리얼리즘과 진보정신의 구현이라는 것이다.²²⁾

이러한 문학전통의 심미적 계보화 및 대중화 운동은 맑스주의 문예운동뿐 아니라 당시 아카데미즘의 문학사 서술,²³⁾ 그리고 강좌파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자본주의 발달사를 계급적 관점에서 정립한 것에 대응한다. 일본낭만파는 문명개화로 구축된 제도권 아카데미즘의 과학적 방법론 및 문단과 저널리즘의 주류에 도전한다는 혁신적 결의에 차 있었다. 그리하여 유물변증법의 역사이론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낭만적 이로니'의 '민족문학사'를 구축한 것이다.

17) 맑스와 교류했던 낭만파시인 하이네가 밝혔듯이, 독일낭만파는 그리스·로마가 아닌 게르만 민족의 중세신화에서 전통을 찾는다. 하이리히·하이네, 『도이츠·로만派』(*Die romantische Schule*, 1836), 未來社, 1994. 야스다의 고전문에 대해서는 渡辺和靖, 『保田與重郎研究』, 베리칸社, 2004 참조

18) 이러한 태도는 「근대의 초극」 권두에 실린 龜井勝一郎, 「現代精神に関する覚書」(1942)에서도 잘 나타난다.

19) 橋川文三, 『日本浪漫派批判序説』(未來社, 1960)는 천황제 비판 속에서 매도되던 일본낭만파와 농본주의 등 우익적 사상운동을 학술연구의 궤도에 올리고 재평가하였다.

20) 座談会, 「浪漫派の將來」, 『日本浪漫派』 1938년 8月号, 66쪽.

21) 保田與重郎, 「日本的なもの」批評について, 『文学界』 1937년 4月号.

22) 座談会, 「浪漫派の將來」, 『日本浪漫派』 1938년 8月号, 73쪽.

23) 藤村作, 『日本文学史概説』, 中興館, 1932.

3. 동아제국의 로망과 근대비판의 정신(1938~1945)

일본낭만파의 대중적 사상운동은 그들의 해체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사상운동의 측면에서 일본낭만파는 계급보다는 민족과 공동체를 중시한, 반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들이 반근대 반자본주의적 문명비판의 국수주의적 태도를 명시한 것은 중일전쟁의 이념으로서 동아신질서 및 동아협동체론 등이 정치적, 학지적 개념으로 유통되면서부터이다.

1938년부터 야스다의 향토적 민족주의는 동아시아 민족문화를 ‘일본적인 것’에 흡수한 제국일본의 민족주의로 고양된다. 야스다는 조선과 만주, 베이징 등지의 여행기를 쓰면서 대륙정복이 세계문화사 건설에 대한 국민의 공상력과 구상력을 증대시켰다고 말한다.²⁴⁾ 그는 1938년에 경주에서 부여로 발길을 옮기고, 다시 만주로 내딛는 철로여행에서 이제 유럽까지 닿는 새 문명의 ‘세계교통로’를 여는 ‘낭만적 일본’에 대한 감회를 토로한다.²⁵⁾ ‘나그네’ 바쇼(芭蕉)가 노래했던 향토적 낭만은 제국일본의 대륙횡단 철로를 달리면서 ‘제국의 낭만’으로 비약하였다. 제국의 팽창과 더불어 ‘낭만적 이로니’의 반어적 근대비판은 대륙횡단의 속도 속으로 흡입된 것이다.

1941년 12월 진주만 공격 이후, 가메이는 메이지의 문명개화를 전면 부정하는 ‘근대의 초극’론으로 치닫는다. 이러한 경향은 좌담회 ‘근대의 초극’에 출석한 하야시, 고바야시에게도 나타난다. 가메이는 근대를 ‘서양의 말기문화’로 규정하면서, ‘속도의 정신’을 추구하는 근대의 과학기술은 인간을 기계에 정복시키고 정신을 왜곡시켰다고 말한다. 근대를 초극하는 ‘일본정신’은 바쇼의 순(殉)하는

24) 『昭和の精神』(1938, 4), 『保田與重郎全集』第16巻, 13~15쪽. 전집 제16권은 조선, 만주, 중국여행기를 게재하였다.
25) 『慶州まで』(1938, 4), 『保田與重郎全集』第16巻, 20~21쪽. 야스다는 경주에서 대구, 대전을 거쳐 논산까지 철로로 여행하고 다시 자동차로 부여를 찾아가다. 조선총독부는 동해선(부산진/울산 간, 안변/포항 간)을 1928년 2월에 기공하고, 경주/울산 간 궤도를 확장하여 1928년 7월에 전면 개통했다. 또한 순천-만포진 간에 만포선을 놓은 후 만주국 중부까지 연결하였다. 순천-천동(논산) 간은 1932년 11월에 영업을 개시하고, 1934년 11월에 평북 회천까지 개통했다.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1940, 195쪽, 338쪽)

(여로의 끝에서 목숨을 바치는) 정신이다. 이는 대미전쟁에 임하는 가메이의 자세이기도 했다. “문명의 독은 ‘평화’의 가면 밑에서 퍼진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평화”라고 생각했던 그는 “노예의 평화보다 왕자(승자)의 전쟁을” 간절히 소원했다.²⁶⁾ 여기서 혐오의 대상인 기술문명은 그러나 전후의 기억 속에서는 일본근대화가 남긴 유일한 가치 있는 전통으로 기록된다.²⁷⁾

처음에 일본낭만파가 발견한 ‘정신의 혈통’은 패배와 방랑의 ‘혁명적 낭만’이었으며, 이로니는 매너리즘과 이데올로기적 경색화를 파괴하는 방법론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운동은 ‘이로니’의 방법론을 통해 민족문화의 혈통을 구축하였고, 아시아의 해방을 쟁취하고 세계사의 건설에 투기하는 ‘낭만적 일본’의 정신으로 비약해 갔다. 그리고 ‘노예의 평화’를 거부하는 저항정신은 전시체제를 유지하는 ‘황국사관’으로 기능하였다. 전후에 비판되었듯이 근대에 저항하는 혁명적 이로니의 민족주의는 청년들을 불사(不死)의 성전에 불러들이는 죽음의 미의식 ‘일본정신’으로 초극되었던 것이다.

4. 동아시아 민족주의와 ‘독립’(1945~1955)

전후에 일본낭만파는 합리성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천황제를 신화화한 국수주의로 비판받았다. 특히 국책단체인 ‘일본문학보국회’에 관여했던 가메이 가쓰이치로와 일본의 대륙정복을 아시아 독립과 문명의 전환사로 찬사한 야스다 요주로는 ‘전범 문학자’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비판의 중심에는 민주주의문학 건설을 테제로 하여 프롤레타리아 문학가들이 조직한 ‘신일본문학회’의 일원이자, 잡지 『근대문학』을 발행한 오다기리 히데오(小田切秀雄), 혼

26) 龜井勝一郎, 『現代精神に関する覚書』(1942), 竹内好 編, 『近代の超克』, 富山房, 1979, 4~17쪽.

27) 龜井勝一郎, 『日本近代化の悲劇』, 『現代史の課題』, 岩波書店, 2005, 61쪽.

다슈고(本多秋五) 등이 있었다.²⁸⁾

그러나 하시카와 분조처럼 쇼와 10년대(1935~1945)에 10대의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일본낭만파의 이념과 야스다의 문장에 감동했던 평론가와 국문학자들은 이데올로기 비판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일본낭만파의 출현과 문제점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및 학술 연구를 내놓는다.²⁹⁾ 그 내용은 일본낭만파의 반체제적 감성과 진보성을 발견하고 옹호하는 것으로, 연구 주체들이 1950년대 일본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재인식의 물꼬를 튼 것은 인민문고 출신의 다카미 준(高見順)이었다. 1951년 그는 일본낭만파도 인민문고와 마찬가지로 “전향이란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갈래가지”였으나, 당시에 그 주장의 정당한 부분을 보지 않았다고 반성한다. 그들을 반동시킨 것은 잘못이 아니었지만, “미에 대한 반성”, 즉 그들이 일본문학에 “건전한 윤리의식”을 요구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다.³⁰⁾ 윤리의식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는 부연 설명이 없다. 하지만 이 발언은 프롤레타리아 문예운동 외부를 문예 지상주의로 규정한 채, 좌익진영 내부에서 ‘윤리’를 독점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다카미의 발언에 재빨리 반응한 것은 다케우치 요시미였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도 일본공산당도 근대주의에 젖어서 민족문제를 외면했기 때문에, 민족의식을 불러일으켜 지배를 강화한 파시즘에 저항하지 못했이라며 근대주의를 비판한다.³¹⁾ 그렇다면 일본낭만파의 민족주의는 왜 파시즘에 포섭되었단 말인가. 다케우치가 근대주의와 민족주의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포착한 순간, 대립하는 것들이 교차하고 담합하는 현실역사는 사라지고 이념의 추상적 대립만이 남는다.

28) 小田切秀雄, 『講座日本近代文学史』第5巻, 第10章「太平洋戦争下の文学」 참조.

29) 일본낭만파의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의식에 대해서는 三枝康高, 『革命的ロマンティズムの道』(『日本文学』1956년 6月号·12月号, 1957년 10月号), 『日本浪漫派の運動』, 東京: 現代社, 1959 참조.

30) 高見 順, 『倫理的意識の日本的歪曲』(『世界』1951년 6月号),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日本浪漫派』, 東京: 有精堂, 1977, 14쪽.

31) 竹内好, 『近代主義と民族の問題』, 『文学』1951년 9月号.

고전정신과 민족혈통에 대한 자각이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원한다는 일본낭만과의 민족문화론이나, 인민문고와 같이 전시개혁에 참여하는 실천적인 국민문화론이 모두 근대를 비판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천황제 내셔널리즘에 근거했던 사실은 기억의 저편으로 밀려난다.

전후에 일본공산당이 인민민주주의의 과제로서 천황제 타도를 주장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산당이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근대주의라는 지적도 타당하다. 그러나 전전과 전후에 걸쳐 일본공산당이 민족문제를 외면했다고 보기 힘들다. 1930년대 강좌파의 2단계 혁명론은 민족자본가와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민주주의혁명을 당면의 과제로 삼았고, 코민테른의 일본에 관한 테제에서도 민족문제는 명확히 제기되고 있었다.³²⁾ 다케우치가 민족문제를 제기하던 1951년 당시에도 일본공산당과 급진적 노동운동에서는 일본을 '식민지'로 인식하고, 소련과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의 강화회담에 반대하고 있었다.

다케우치는 일본이 미국에 종속되지 않는 자주적 국민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서라도 '아시아의 처녀성을 가진 내셔널리즘'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³³⁾ 여기서 '처녀성'의 유무를 문제삼는 말은 일본과 아시아의 민족주의를 비교한 것이지만, 1945년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민족주의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해 가는 상황을 보여 준다. 1930년대 정치상황에서는 '민족사회주의'로 직역되는 나치즘(Nationalsozialismus)이 민족주의나 전체주의를 대표했으며, 지배사상으로서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와 대립하고 있었다.³⁴⁾ 때문에 전후에도 민족주의 비판은 여전히 천황제 파시즘을 신화화하고 침략을 성전화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문제였다.

32) 石堂清倫 編, 『コミンテルン 日本にかんするテーゼ集』, 青木書店, 1961. 공산당의 문헌과 지식인들의 연구는 일본혁명에서 민족문제의 해결을 전제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갈등을 인식하고 있었다.

33) 竹内好, 「アジアのナショナリズムについて」(1951), 『日本とアジア』, ちくま書房, 1993, 114쪽.

34) 戸坂潤, 『日本イデオロギー論: 現代日本に於ける日本主義・ファシズム・自由主義思想の批判』, 白揚社, 1935. 참조.

역사적 개념인 민족주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다케우치 자신은 1959년 글에서 ‘근대의 초극’이 복고-유신, 존왕-양이, 쇄국-개국, 국수-문명개화, 동양-서양이라는 과제를 양손에 얹고 달려온 일본근대의 아포리아(난제)를 응축시킨 명제였다고 지적한다.³⁵⁾ 이분법적 도식에 근거했지만, 일본근대사에서 어느 하나도 포기된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다케우치도 민족주의와 근대주의가 방패와 창처럼 대립하며 공존해 온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다케우치는 왜 일본근대사를 민족주의와 근대주의의 이항대립 구조로 파악하고, 근대주의를 악의 축으로 배제하려고 하는가? 중국문학연구자 다케우치가 전전부터 반근대론적 민족주의에 입각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전후의 중국혁명과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전개에 주목하면서, 몇 가지 사안을 입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에서 민족주의가 자주독립사상으로서 고양된 것. 둘째,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일본의 혁신세력 안에서 반제민족해방을 위한 무장투쟁의 기운이 충만해진 것. 셋째, 1956년 이후 민족주의에 입각한 혁명운동이 일본에서 현실적 비전과 대중적 기반을 상실해 간 것.

1950년부터 민족주의는 부르조아의 혁명사상이자 프롤레타리아의 반동사상이란 ‘외래적’ 각인을 탈피했다. 대신에 아시아·아프리카에서 반자본주의적 국가건설을 추동하는 혁명세력의 사상이자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주체적’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었다. 1949년 중국내전이 끝나자, 소련은 마오쩌둥의 무장투쟁이야말로 식민지, 반식민지에서의 해방투쟁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인정한다. 1950년 1월 코민포름의 일본정책도 변한다. 미군 점령하의 평화적 민주화를 부정하고 무장투쟁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그해 2월 중소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은 중국과 소련의 가상 적으로 명기된다.³⁶⁾

35) 竹内好, 「近代の超克」(1959), 『近代の超克』, 富山房, 1979, 338쪽.

이후 일본공산당은 분열하고 파벌 간 갈등이 존재했지만, 일본에서도 비합법 군사투쟁에 대한 충동이 가시화된다.³⁷⁾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은 경찰 예비대를 창설했고,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추진,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채 주권의 완전회복을 인정한다. 대신 일본은 미군기지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재무장을 두려워하는 혼란상태에서 안보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을 실현한다. 당시 일본의 지식인과 언론, 노동조합은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전면 강화’를 지지하고, 비기치화 중립국 노선을 주장했다. 여론을 무시하고 ‘단독강화’를 추진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파시스트·매국노로 매도되었다. 반면 요시다 는 반전주의로 수감되었던 리버럴리스트 정치가였다. 전후에 그가 추구한 정치는 ‘전쟁에서 졌지만 외교에서 이기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었다.³⁸⁾

일본공산당은 1951년 2월 제4회 전국협의회(4전협)에서 도시게릴라 투쟁노선을 확정했고, 그해 10월의 5전협에서 농촌에서부터 도시를 포위하는 군사방침을 채택하고 산촌공작대를 조직했다. 전국에 화염병 투쟁이 번지고 미군기지 및 경찰서, 재판소 등이 공격당했다. 그 결과, 1949년 중의원선거에서 35의석을 확보했던 일본공산당은 1952년 선거에서 전원 참패했으나, 산촌부에서의 무장투쟁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미소의 평화공존이 진행되자, 1955년 7월 6전협에서, 베이징에 망명해 있던 지도자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의 병사 사실이 밝혀지고, 무장투쟁 노선은 극좌모험주의로 철회되었다.

이후 일본공산당은 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한 합법적 대중투쟁으로 선회하였고, 지식사회에서도 혁명에 대한 충동은 사라졌다. 한국전쟁의 특수로 경제부흥

36) 이후, 소련은 미국과 동유럽 관계를 주도하고 중국은 동아시아 공산당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는 역할분담체제를 이룬다. 下斗米伸夫, 『アジア冷戦史』, 中公新書, 2004, 제2장 「중국혁명과 중소동맹」 참조.

37) 『50年代共産党非合法軍事文書集成』, 1~2, 冥土出版, 1991.

38)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NHK의 2003년 방송 「その時歴史が動いた: 占領日本 運命を決めた直談判—吉田茂とマッカーサー—」를 참조했다.

에 성공한 일본에서는 ‘민족독립행동대의 노래’³⁹⁾를 부르던 노동자가 소시민적 풍요를 꿈꾸는 근대인으로 변신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1956년부터 일본공산당의 온건적 합법노선에 반발하는 학생운동조직들이 출현하고, 이들 신좌익을 중심으로 60년 미일안보 반대투쟁과 68년 이후의 급진적 학생운동이 전개된다. 이런 격동의 와중에서 다케우치는 일본이 아시아의 반제민족주의와 연대할 때에 근대주의와 그 세계체제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성취할 수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

5. 반근대 로망과 혁명적 폭력(1956~1972)

미완의 운동 ‘근대의 초극’을 총괄하면서 다케우치는 경고한다. 전후 근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부활을 위해 스스로 피해자의 위치에 서서 일본낭만파를 비난하지만, 일본낭만파를 쓰러뜨린 것은 근대주의자들이 아니라 ‘외부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⁴⁰⁾ 근대주의의 패배에 대한 다케우치의 생각은 신에 비평가 에토 준(江藤淳)의 생각을 인용하고 있다. 반면 젊은 에토는 근대주의에 입각한 내셔널리스트이다. 당시 그는 리얼리즘을 부정한 일본낭만파의 ‘신화’를 극복하는 방향이 인간중심의 근대문화 건설에 있음을 제시하고, ‘죽음’에 바쳐진 민족적 에네르기를 ‘생’의 방향으로 전화시킬 것을 주장한다.⁴¹⁾

다케우치는 도쿄대학 교양학부 교수이며 나치즘에 비판적인 독일연구자 다케야마 미치오(竹山道雄)가 일본문화론을 재정립하면서 ‘탈아’적 방향에서 ‘신문명 개화’를 다그쳐 간다고 분노한다.⁴²⁾ 다케우치는 미일동맹과 근대주의에 통합되어 가는 일본민족의 사상적 식민화를 파괴시킬 ‘내부의 힘’을 찾는다. 그리고 일

39) 川上 允, 『民族獨立行動隊の歌, 誕生物語—天空32メートルの労働者詩人 山岸一章アルバム』, 本の泉社, 2008.

40) 竹内好, 『近代の超克』, 338~340쪽.

41) 江藤淳, 『神話の克服』, 『文学界』1958년 8月号.

42) 竹内好, 『近代の超克』, 325쪽과 341쪽의 각주에서 다케우치는 일본 외무성의 지원을 받는 ‘일본 포럼 일파’라고 적고 있다.

본낭만파의 사상운동에서 문명개화에 대한 ‘종말론적 계기’를 재확인하고 ‘제2의 탈아’를 종식시킬 가능성을 읽는다.

루원연구자 다케우치가 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을 사상운동의 이슈로 부각시킨 것은 마오이즘과 무장투쟁노선이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운동의 지도원리로 떠오른 1950년대부터였다. 그는 일본 민족주의의 좌절을 개탄하면서 아시아의 ‘저항’을 선망하였다. 그는 루원 소설의 인물들이 내포한 근대화의 욕망에 대해서도 주시하지 않았다. 이른바 일본 진보진영의 주류는 이승만과 장제스(蔣介石)의 근대주의를 배제하고, 아시아를 일본근대를 극복하기 위한 거울이자 방법으로 바라보았다. 중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근대사의 아포리아’를 꺼안고 있었지만, 다케우치가 말하는 아시아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혁명중국으로 단순화되어 있었다.

아시아의 분열과 갈등을 묻지 않고 아시아를 일본혁명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적 대상으로 추상화시킨 결과, 다케우치는 중국혁명의 신화화에 기여하였다. 그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모른 채 1977년에 눈감을 때까지 ‘근대의 초극’ 운동을 지속했다. 근대에 대한 ‘저항’ ‘방법’으로서 아시아를 꿈꾼 다케우치의 로망은 아시아에 부채의식을 지닌 일본인들의 중국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담론은 1990년대 후반 아시아주의 부활 속에서 활발히 기억되어 왔고, 2000년대에는 중국어와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한편, 1968년부터 2년간 일본낭만파에 대한 회고록을 쓰던 야스다는 문화대혁명의 사상과 홍위대의 청년들에게서 ‘일본낭만파의 문명관’을 발견한다. 둘의 반근대적 민족주의는 피상적으로 닮은꼴을 갖는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근대’의 저급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에 20세 전후의 청년들이 일어난 것이며, 이 점에서 는 전국시대 일본의 영웅들도 약관의 나이였다고 강조한다.⁴³⁾ 야스다는 또한 신

43) 保田與重郎, 『日本浪漫派の時代』(至文堂, 『国文学 解釈と鑑賞』 1969년 4월호부터 1971년 7월호까지 연재), 新学社, 1999, 34쪽.

좌익의 급진적 청년들에게서 일본낭만파의 ‘혁명적 이로니’를 감지하고, 반근대적 저항으로서 아시아주의의 세기적 의의를 평가한다.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역사는 대동아해방전쟁이다. 아시아의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을 제외한 메이지유신사의 후편은 없다. 우리의 의지는 아시아 대혁명시대의 완결에 있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라는 아시아 자체의 신이었다. 이러한 대낭만을 자기의 젊음의 피로 그린 이들의 문학이, 시대가 요구한 문학이었다. 20세기는 아시아가 눈뜬 시대이다. 세계사에서 말하는 아시아 대혁명시대이다. 세계사의 최대의 낭만적 시대이다.⁴⁴⁾

야스다는 아시아의 자주독립투쟁만이 메이지유신의 혈통을 계승하는 역사라고 생각했다. 대동아전쟁이 대영제국을 해체하고 아시아 각국의 자주독립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1964년에 하야시 후사오가 『대동아전쟁 긍정론』에서 이미 밝혔다.⁴⁵⁾ 이들은 단순히 제국주의를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독립각을 세움으로써 제국일본의 ‘대미성전’이 추구했던 반제투쟁적 아시아주의를 복원시키려는 것이다. 당시 베트남전쟁 중에 미군기지를 제공하고 전쟁수요의 특혜를 누리는 일본사회에서는 아시아 반미민족해방투쟁에 공감하는 반전운동이 펼쳐지고 있었다. 1960년대 베트남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제민족주의혁명의 통일전선이 아시아주의의 진정성을 확인시키며 일본낭만파의 로망을 불러오고 있었던 것이다.

야스다는 베트남의 민족운동에 공감하는 젊은이들이 제스처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청순한 정의를 생각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44) 保田與重郎, 같은 책, 49~50쪽.

45) 林房雄, 『大東亞戦争肯定論』, 番町書房, 1964. 이 책의 개정판이 1968년에 나온 이후, 다양한 보급판이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고 말한다. 그는 메이지 이래 일본의 대아시아혁명가들이 재야정신과 낭인의 마음에 통하는 ‘반역’ 심리를 가졌지만, 그들이야말로 아시아의 혁명전사와 더불어 그 나라 혁명에서 피를 흘렸다고 말한다.⁴⁶⁾ 아시아주의와 일본낭만파에 대한 야스다의 기억은 이렇게 제국의 권좌를 멀리하고 외지에 나가 죽음을 불사한 지식인들의 ‘혁명정신’과 ‘피’의 이미지로 응축되어 있다.

대동아전쟁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다케우치는 어떤가. 1959년, ‘근대의 초극’을 회고하면서 그는 아시아 침략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을 추궁하지만, 한편 서구에 대한 반제국주의 전쟁으로서 총력전의 성격을 옹호한다. 총력전의 주체는 선량한 민중이며 그들의 저항과 굴종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찰한다.

‘국가의 총력을 들고서’ 싸운 것은 일부의 군국주의자가 아니라, 선량한 대부분의 국민이었다. 국민이 군국주의자의 명령에 복종했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국민은 민족공동체의 운명을 위해 ‘총력을 냈던’ 것이다. 오늘날, 상징으로서의 천황과, 권력주체로서의 국가와, 민족공동체로서의 국민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지만, 그것은 패전의 결과 그렇게 된 것이지, 총력전의 단계로 거슬러올라가 유추할 수 없다. 여기에 (사상을 구분하는 어려움이 있다), 전쟁 중의 단순한 연합 편승 추종, 즉 사상을 방기한 흉내내기 사상과, 자주적 창조적, 즉 민중에 책임을 묻는 사상을 분별하는 방법의 어려움이 있다. 민중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예언자를 예외로 친다면, 어떤 상황에서 저항과 굴종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였다.⁴⁷⁾

민중의 책임을 묻는 배경에는 1956년에 가메이로부터 시작된 ‘쇼와사(昭和史) 논쟁’이 자리잡고 있다. 논쟁의 양측에서 강좌파 역사학자는 지배권력의 타도

46) 保田與重郎, 『日本浪漫派の時代』, 48~49쪽. 야스다가 인용한 일본의 지식인 쉰원을 지원했던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이다.

47) 竹内好, 『近代の超克』, 314~315쪽. 번역은 원문에 충실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 문장을 첨가했다.

를 위해 천황제와 군국주의를 부각시켰고, 가메이는 국민의 협력과 동요에 대한 성찰을 제기했다. 그런데 다케우치는 침략전쟁에서의 지배와 굴종에 대한 전후의 문제제기를 아시아 민족의 해방과 공영을 내걸었던 총력전체제의 과거로 소급시키고 상쇄시킨다. 민중의 자주성에 기초한 사상(방법)으로서 전쟁폭력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사상적 주체성은 국가권력이나 지배이념에 대한 ‘저항’이 아닌, 아시아 민족공동체의 반군대적 ‘자주독립’에 있다.

메이지유신을 존왕양이의 민족투쟁사로 보든, 서구문화와 자본주의 세계시스템에 대한 종속사로 보든, 좌우익의 ‘혁명사상’에서 보면 결국 일본근대는 자주성 좌절의 역사로 기록된다. 전후부흥은 미국과 일본독점자본의 승리일 뿐이라는 것이다.⁴⁸⁾ 여전히 ‘노예’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민족에게 중국혁명과 문화대혁명은 ‘자주독립’이 피의 전쟁임을 알려주는 교과서이다. 『마오쩌둥선집』은 ‘혁명전쟁의 역사’를 편집한 것이며, 마오쩌둥의 지도사상은 ‘혁명은 폭동’이라는 인식하에 농민폭동을 조직한 데서 출발한다.⁴⁹⁾ 혁명전쟁을 역사화한 마오이즘은 민중의 자주적 저항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론의 교과서였던 것이다.

패전 이후 일본의 좌우익 ‘혁명세력’은 일본민족이 아시아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의 대열에 귀속되기를 희망했다. 우익(보수진영) 민족주의자의 경우, 그것이 패배로 끝난 대동아전쟁의 이념적 의의를 계승한다고 믿었다. 좌익(진보진영) 민족주의자의 경우, 그것이 근대주의와 미일동맹을 넘어서 아시아의 영구평화와 민중혁명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파괴’를 통한 ‘건설’의 방법론, 즉 ‘혁명적 이로니’의 일본낭만파적 사상운동은 미시마 유키오의 할복자살 사건을 거친 후, 1972년 아사마산장(淺間山莊)사건을 통해 일단 막을 내린다.⁵⁰⁾

48)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清), 서동만 옮김, 『일본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89, 451쪽.

49) 일본어판 『毛澤東選集』 第一卷(外文出版社, 1968)은 ‘제1차 국내혁명전쟁의 시기’와 ‘제2차 혁명전쟁의 시기’로 편집되어 있다. 1927년 3월의 문건 ‘호남성 농민운동 시찰보고’는 농민폭동을 조직하는 관점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968년에 중국에서 일본어판 마오쩌둥선집을 출판한 사실로도 신좌익운동에서 마오이즘의 영향력이 지속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6. 소와사 논쟁과 일본근대 재인식

1955년 이후 일본사회가 동아시아 혁명운동의 충동에서 점차 멀어지는 대신, 자유주의, 근대주의, 민족주의를 불문하고 지식인들은 탈(脫)제국적 관점에서 국민주체를 재정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풍토에서 야스다는 고전부흥 운동을 지속하면서 『조국』(祖国)이란 잡지를 발간했지만 더이상 저널리즘 논객으로 활발히 활동하지 않았다.⁵¹⁾ 반면 가메이는 1956년 3월에 「현대 역사가에의 의문」이란 글을 발표하면서 ‘소와사논쟁’의 주역으로 등장한다.

1955년 11월 이와나미서점에서 강좌파 역사학자인 도야마 시게키(遠山茂樹), 이마이 세이치(今井清一),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의 공저인 『쇼와사』(昭和史)가 출판되었다. 문고판의 이 책은 15년간 전쟁에 빠져들어간 일본사회의 모순을 해명하고 싶은 대중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일약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소와사를 청산하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려는 역사가의 주체성이 바야흐로 대중의 역사인식 욕구와 결합한 것이다. 이 진지한 교류에 가메이가 돌을 던졌다. 자신을 비롯한 일본인의 전쟁참여와 동요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이 없는 역사’ ‘국민부재의 역사’라는 것이다. 천황제의 ‘충신 대 역적’ 구도가 맑스주의의 ‘진보 대 반동’ 도식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이다.⁵²⁾

상징천황제를 옹호하는 가메이와 그 동조자들, 그리고 천황제 타도를 주장하는 강좌파 역사학자들 사이에 벌어진 역사인식 논쟁은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다수 참여하면서, 논쟁은 역사가의 주체성 및 역사서술 역사교육의

50) 유명한 별장지역인 가루이자와(軽井沢)에서 무장한 연합적군(連合赤軍)파 5명이 경찰과 대치하는 영상이 매스컴에 보도된 사건(NHK에서 10시간 20분 중계, 최고시청률 89.7%). 이를 계기로 학생운동권 내부에서 행해진 자기비판과 구타살인 사건이 알려지고 이후 신좌익 운동은 고립되었다. <http://www.nhk.or.jp/archives/nhk50years/history/p16/index.html>(2009. 12. 18 검색).

51) 『解釈と鑑賞』 1967년 4월호부터 1969년 7월호까지 게재한 회고록 「일본낭만파의 시대」가 1970년 12월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52) 龜井勝一郎, 「現代歴史家への疑問」, 『文芸春秋』 1956년 3월호. 中央公論社에서 1959년에 간행한 「現代史の課題」에 수록되었고, 현재 이와나미서점에서 재출판하고 있다.

문제를 넘어서 전후책임 및 민중의 주체성을 묻는 문제로 발전하였다. 군국주의와 초국가주의의 희생자로 그려지던 민중과 소시민층이 가해자와 협력자의 얼굴로도 부상된 것이다.⁵³⁾ 이렇게 일본공산당의 방향전환과 쇼와사논쟁을 거친 결과, 천황제 타도와 공산혁명의 전략적 테제에서 벗어난 개정 신판『쇼와사』(昭和史, 1959)가 출판되어 80년대 초반까지 스테디셀러의 지위를 누린다.

전후의 가메이는 일본의 ‘의사종교국가’ 성격을 밝히는 등, ‘일본근대화의 비극’을 규명하고 나섰다. 그는 다케우치를 통해 중국의 근대를 이해하였고, 조선과 중국에 대한 정복자 의식을 반성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근대화와 독립은 나름대로 서양에의 저항을 의식한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아시아 국가는 패배했다는 망상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철저한 패배로부터 생기는 아시아적 저항을 일본인은 알지 못했으며, “아시아적 저항에서 일본적 타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세계에 기여한 노벨상 수상 과학자의 배출이 근대일본의 전통으로 손꼽힌다.⁵⁴⁾

가메이의 아시아 인식은 다케우치로부터 출발했으나, 근대문명에 대한 재평가와 아시아의 ‘특수문화권’이라는 독자성으로 귀결된다. 일본은 동양과 서양의 ‘의붓자식’이라는 표현 속에는⁵⁵⁾ ‘메이드 인 재팬’을 세계가 인정하기 전 단계의 패배감과 고립감조차 배어 있다. 가메이는 국제사회의 윤리감각 및 아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본 패배의 조건을 만든 것은 장제스정부와 중국인민의 저항”이었음을 환기시킨다.⁵⁶⁾ 장제스의 국민당에 대한 사과를 간과하는 혁명적 아시아주의의 당파성을 비판한 것이다. 전후일본에서는 공산주의가 종교재판 식으로 전쟁범죄와 전쟁책임을 추궁했으며 그 와중에 소련과 인민이 관념적으로 신성

53) 일본에서 전후책임 문제가 다시 대중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0년대의 동아시아의 민족주의 및 아시아주의의 부활과 맞물려, 역사인식 논쟁이 부활하면서부터이다. 쇼와사 논쟁의 고찰 및 자료는 大門正克 編著, 『昭和史論争を問う: 歴史を叙述することの可能性』, 日本経済評論社, 2006.

54) 龜井勝一郎, 「日本近代化の悲劇」, 『中央公論』 1956年 8月号, 『現代史の課題』, 60~61쪽.

55) 같은 글, 85쪽.

56) 龜井勝一郎, 「戦後日本についての覚書」, 『現代史の課題』, 164쪽.

화되고 또다른 ‘의사종교국가’의 형태가 나타났다는 것이다.⁵⁷⁾

가메이는 과거의 일본낭만파를 문화적 식민지라는 위기감을 느낀 청년의 호기로 기억하면서, 그 부활을 반기지 않는다. 미국의 풍속과 오락에 ‘무조건 항복’한 패전의 ‘우스꽝스러움’을 자각하고 있지만, 더이상 ‘문명개화’를 골계시켰던 과거의 정열을 품지 않는다. 일본인이 ‘동양의 맹주’라는 우월감과 전쟁에 빠져든 저변에는 서양에 대한 열등감이 작용했고, 문화적 식민지에서 ‘독립’하려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⁸⁾ 그는 ‘제2의 문명개화’를 골계시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진검승부에 매달릴수록 ‘행동과 정열의 과잉’ 등 ‘우스꽝스러움’이 동반되는 법이니, 역사인식에는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고 타이른다.⁵⁹⁾ 가메이는 국수주의 심리로 빠져든 일본낭만파의 반근대 민족주의 이념을 초극하고 오히려 근대주의로 재전향한 것이다.

비평가 가메이의 문학적 문체는 사회구조의 객관화와 모순의 극복을 중시하는 맑스주의 역사학과 격돌했고, 그의 재전향은 다케우치의 저항정신과 야스다의 재야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양심가들로부터 비웃음을 샀다. 하지만 가메이는 다케우치 못지않은 사상운동을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가메이의 일본낭만파에 대한 망각, 일본근대에 대한 긍정은 전후일본의 국민주체를 정립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반성적 논리였던 것이다.

1959년에 『현대사의 과제』를 묶어 낸 가메이는 일본이 메이지와 쇼와를 거쳐 ‘제3의 현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전후 일본사회의 분열과 혼란은 민족모순과 국가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을 의미한다. 그러나 헝가리의 유크사태가 입증하듯이 공산주의혁명도 결국 ‘수동성의 비극’에 지나지 않는다.⁶⁰⁾ 그는

57) 같은 글, 169~170쪽.

58) 龜井勝一郎, 『現代史の中のひと』, 文芸春秋新社, 1955년 10월, 46쪽.

59) 龜井勝一郎, 『戦後日本についての覚書』, 172쪽.

60) 같은 글, 179~180쪽.

더이상 파괴를 통한 건설을 의미했던 ‘혁명적 이로니’ 및 ‘아시아는 하나’라는 혁명을 꿈꾸지 않았다. ‘성급한 통일과 통제’를 생각하기보다 ‘혼란을 세련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서문화를 양자택일하거나 결합하려고 하기보다 ‘특수문화권’으로서 각각의 이질성을 동시에 숙성시키자는 방법론이다.⁶¹⁾

혁명운동과 전향을 거듭해 가던 끝에 가메이는 ‘순수일본적인 것’, ‘천하통일’, ‘아시아는 하나’라는 일본근대의 주체화 로망과 거리두기에 안착하였다. 그는 좌우의 민족주의가 발견한 ‘지배자-노예’라는 균열적 인식 및 그 형용모순을 해소하려는 ‘자주독립’의 주체화 논법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의 ‘특수문화권’은 민족문화 전통으로서의 상징천황제와 근대화 전통으로서의 과학기술에 입각하여, 구미와 아시아 사이에서 이질성을 함유하면서도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방법이다.⁶²⁾ 1950년대의 정치투쟁과 대립한 이런 탈정치화 논리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곤란을 극복한 1960년대부터는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내셔널리즘의 주류를 형성한다.

1960년 안보투쟁 직후, 리버럴리스트 지식인들은 중국혁명과 거리를 취하면서 독자적인 내셔널리즘을 정립하기에 힘썼다. 도쿄대학 교수인 정치학자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는 ‘혁신 내셔널리즘’을 논하면서 ‘저항에서 혁신으로’의 방향전환을 주장했다. ‘혁신’은 중일전쟁 이후 전향좌파가 ‘혁명’을 포기하고 ‘전시개혁’을 주장하던 때에 즐겨쓰던 용어이나, 사카모토가 주장하는 혁신은 두 개의 기동을 갖는다. ‘중국과의 체제경쟁에서 단련되는 일본독자의 민주주의 체제’와 ‘평화’가 그것이다. 그는 미군기지 반대투쟁이 ‘지식인의 추상적·보편적 평화운동’으로 끝나고, 이승만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일본어민의 저항이 국지(局地)적 투쟁으로 끝난 것을 반성한다. 평화의 보편적 가치에서 표현할 수 없

61) 앞의 글, 194쪽.

62) 「民族性をめぐる様々の感想」(『文学界』1957년 2월호), 「現代史の課題」, 200~206쪽에 가메이의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난다.

는 ‘촌민의 목소리’를 국민적 차원에서 분유(分有)하고, 공공적 심벌로 세워 나가자는 것이다.⁶³⁾

이렇게 1960년대 급진적 학생운동의 한켠에서는 추상적 보편이념이나 청춘의 파괴적 열정이 아닌 ‘생활공동체’의 공공이익에 기초한 내셔널리즘이 성숙해 가고 있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중미관계가 개선되고 미일안보에 반대하는 좌우익의 혁명운동이 동시에 침체된다. 이후 일본은 아시아와 미국 간의 균형외교 속에서 국익을 취하는 ‘특수문화권’으로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동시에 미국과의 경제경쟁이 심화되면서 자본주의 블록경제 단위를 강화하려는 ‘아시아주의’도 출현하고, 그에 대한 비판 담론도 재등장한다.⁶⁴⁾

그리고 1990년대 일본의 경기불황과 중국위협론이 맞물리는 가운데 다시 ‘혁명적 아시아주의’를 환기하는 담론이 등장하였다.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한국의 민족주의 고양에 자극받으면서, 일본 민족주의의 로망인 아시아주의에 대한 기억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일본과 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 아시아주의는 그 내용이 하나가 아니며, 각각의 방향이 어디로 튈는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아시아주의, 주체, 식민지, 독립……. 국경을 넘어서 교차하는 여러 갈래 기억들이 역사화를 욕망하면서 길항하고 있다. 역사적 성찰을 결핍한 채 난무하는 언어들에 현실을 포위하고 변화시키는 파장력을 꼼꼼히 따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까닭이다.

63) 坂本義和, 「革新ナショナリズム試論—新たな国民像を求めて」, 『中央公論』 1960년 10월호.

64) 1974~75년에 『近代の超克』을 쓴 신좌익의 이론가 히로마쓰 와타루(廣松渉)는 1989년에 개정판 『近代の超克』을 출간하면서, 『昭和思想史への一視覚』(新訂・増補版)에서 자본주의 블록경제 형성논리로서의 아시아주의를 비판한다.

초록

제국일본의 로망과 동아시아 민족주의 : 일본낭만파에 대한 기억, 1950~1960년대 | 조관자

투고일자 : 2009년 12월 17일 | 심사일자 : 2010년 1월 12일

일본낭만파(Nihonromanpa)는 1930년대 이래 일본의 반근대적 주체성을 추구한 대표적 운동이다. 이 글은 일본낭만파에 대한 기억이 아시아주의와 관련하는 양상을 고찰했다. 중국혁명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으로 이어지는 1950~60년대에 아시아 민족주의가 고양되었고, 일본에서는 일본낭만파를 재인식하는 담론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일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은 GHQ하의 평화적 민주화를 거부하고, 일본 민족주의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모택동주의에 의거했다. 그들은 서구식 근대화에 저항하는 ‘아시아적 주체’를 세우려고 했다. 그레아만 서구근대의 ‘노예’라는 일본민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번역과 제국과 기억 : 김소운의 『조선시집』에 대한 전후 일본의 평가에 대해 | 윤상인

투고일자 : 2009년 12월 13일 | 심사일자 : 2010년 1월 12일

김소운의 『조선시집』은 일제강점기 및 전후 일본에서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역시집이 달성한 높은 완성도에 대해서 전전의 일본문학 대가뿐만 아니라 전후의 일본지식인들도 찬탄을 아끼지 않는다.

번역자인 김소운은 중주국 일본인에게 ‘조선의 마음’을 알려 민족의 자긍심을 살리고자 했고 이 역시집의 출판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조선시집』의 번역 내용을 살펴보면, 역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이 역시집에 채택된 시가 거의 모두 서정시라는 점과 미묘한 정치적 표현조차도 역자에 의해 서정적으로 분식(粉飾)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형식 상에서도 대부분의 원시를 일본 시가의 전형적 운율형식인 7·5조로 바꾸어 놓았고, 내용 면에서도 원시의 세계를 일본전통의 시적 규범과 정서 속으로 수렴시키는 번역 태도가 뚜렷하다.